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6.19.(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1시와 내일 10시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수요일에 통일부와 산림청이 공동 주최하는 남북산림협력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이어서 통일방안 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와 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한국세계지역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전협정 70년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보도 글이나 사진을 보면 지금 김정은이 연설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하고, 만약에 연설을 안 한 걸로 본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연설이나 보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답변>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았던, 그러

니가 보도되지 않았던 사례는 몇몇 당대회와 겹쳐서 했던 전원회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질문> 간부 인사를 보면 당 중앙위 부장 중에 경제부장만 교체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경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오수용 경제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분 요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료입니다. 현재 경제 분야의 실적이 부족하기... 부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기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